

코로나19 대응 생계형 일자리 지원

전주시, 비정규직 실직자 대상 27일까지 접수 받아 공공일자리 참여자 15명 모집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단기 공공일 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시간 강사, 대리기사, 일용직근무자 등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생계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총 15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참여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및 공공요금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39세의 근로능력자로 시는 2020년 1월 이후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제, 임시직 등에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해 일자리를 상실한 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거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친 자 등은 후순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임금은 시급 8590원과 간식비 5000원으로 주·월차 및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55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실직자를 위해 단기형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완산구, '착한' 나눔 운동 확산 도와

사랑의 헌혈운동·임대료 인하·화훼농가 이용 등 적극 시행

전주시 완산구가 긴급환자를 위한 따뜻한 혈액 나눔을 통해 전주의 '착한' 운동의 가치 높이기에 나섰다.

완산구(구청장 황권주)는 23일 구청 전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함께하고 나누는 전주의 '착한' 나눔 운동의 확산을 도왔다.

혈액은 현재까지 인공적으로 제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 헌

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에 완산구는 '착한' 나눔 운동에 혈액 나눔을 더해 그 본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완산구는 사랑의 헌혈운동 외에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발(發) 임대료인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이용 △코로나19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

역화훼농가 이용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의 행보에 적극 발맞춰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수급이 더욱 어려워진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넘어서는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남원의료원, 대구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자 22명 격리해제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지난 11일과 12일 대구지역에서 이송되어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1명, 23일 21명 등 22명이 격리 해제됨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2번의 유전자 증폭(CP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의료진이 환자의 후유증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해 퇴원할 수 있다.

퇴원 환자들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친절하게 보살펴 주시고 정성껏 치료해 주신 남원의료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퇴원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아직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께서도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교통약자 전용택시' 사업자 모집

전주시설공단, 내달 3일까지 15명 모집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택시(임차택시)'의 도입을 위해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5명으로 전주시 개인택시 사업자에 한한다. 모집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이 기간 안에 종합경기장에 위치한 이지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 시설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사업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이지를 업무만 수행 가능하며, 일반인 대상 영업은 할 수 없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교통약자 이용 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객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각장애인이거나 신장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교통약자 특장차량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이용이 이원화된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기존의 이지를 특장차량과 동일한 이용체제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설공단 이지콜센터(063-271-2727)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자전거 안전 서포터즈' 신청하세요"

전주시, 내달 6일까지 접수 받아 25명 모집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행진을 함께 운영할 시민을 찾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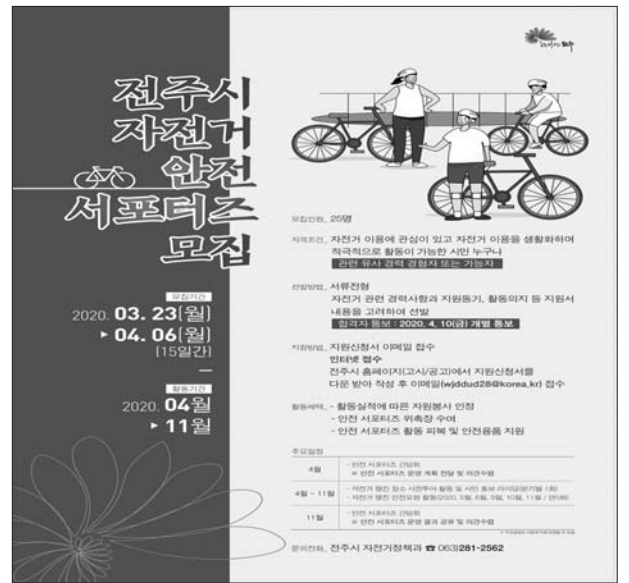
시는 전주시 자전거 행진 시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편안한 라이딩을 지원할 '자전거 안전 서포터즈'를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

'자전거 안전 서포터즈'는 평소 자전거 이용에 관심 있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며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총 25명이다.

서포터즈들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자전거 행진 진행 시 참가자의 안전을 유도하고 행사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자전거 행진 장소를 사전 투어하고 자전거 타기 불 조성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홍보 라이딩도 분기별 1회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6일까지 이메일(wjddud2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관



전주시는 전주시 자전거 행진 시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편안한 라이딩을 지원할 '자전거 안전 서포터즈'를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

련 경력사항과 지원동기 등 지원서 내용을 심사해 안전 서포터즈를 선발할 계획으로 다음달 10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서포터즈에게 위촉장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나서

실·국장·과·동장 참석 상호간 거리 두고 앉아 확대 간부회의 진행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아 회의를 진행하고 비대면 식사를 하는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시는 23일 실·국장과 과·동장들이 상호간 거리를 두고 앉은 가운데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시청 강당에서 가졌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간부들이 서로 2m 이상의 간격을 띄고 앉아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과 방역대책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구내식당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일렬로 식탁에 앉아 비대면 식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위해 식사시간을 각 실·국별로 나눠 지정하고, 식탁에서 마주앉지 않고 한 줄로 앉아 식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정 간격을 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동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 앉아 확대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구내식당 역시 각 부서별로 이용시간을 정하고 한 줄로 식탁에 앉아 비대면 식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